

인간·환경·미래

2013년 봄 제10호

## 금기어와 한국인의 감성

조향숙



# 금기어와 한국인의 감성

조향숙\*

## 【요약】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인 고유의 정서를 말해오는 과정에서 그 근거의 제시가 매우 미약한 편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미약한 지점을 포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개로 ‘금기어’를 설정하였다. 특정 상황에서의 금기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인 고유의 정서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였다. 더불어 완곡어법 또한 한국인의 정서를 포착하는 데 매우 긴요한 표현법임에 주목하였다. 금기어와 완곡어법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인의 정서 구축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의 과정이 곧 개인의 심리와 직결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심리가 사회적 삶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감성언어’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고의 연구 과정 자체가 의사소통능력의 제고 및 사회적 삶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금기어의 사용이나 완곡어법의 사용이 개인의 심리 상태와 직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심리 상태는 정서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역으로 보자면, 이런 역할의 분석이 곧 사회적 삶을 위한 긍정적 교육의 한 일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금기어나 완곡어법이 우리 고유의 정서들, 그리고 삶의 태도 등과도 맥이 닿아 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방식의 의사소통방식 또한 충분히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감성, 금기어, 완곡어법, 교육적 효과, 한국인의 정서

---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2-35C-A00399)

## I. 들어가며

금기어에 대한 연구는 김성배(1962)의 『한국 금기어고』와 문효근(1962)의 『한국의 금기어』를 시작으로 비교적 꾸준하게 이루어진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성과를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민속학적 분야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이런 경우 대개 지역의 민속적 상황이나 지역 산업적 측면과 결부시킨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기철(1977)의 『영동지방의 금기어연구』나 『영동지방의 생업과 관련된 금기어연구』, 『어업과 속신-금기어를 중심으로』와 진성기(1973)의 『제주도 금기어 연구』, 김승찬(1996)의 『기장지방의 금기 속신』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연구들은 대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에 한국인 전체의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금기어 역시 일반적 현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기어가 갖는 의미를 도출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일반화하여 한국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여성과 관련한 연구 성과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차별의 대상으로 종속되었다. 따라서 그 차별에 따른 각종의 금기 사항이 만연하였으며, 이런 현상이 언어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현대에 와서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산생하는 것 역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오새내(2002)의 『한국어 여성비속어의 분류와 특성』이 가장 대표적인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노지은(1995)의 『월경경험과 문화적 금기에 관한 연구』도 여성의 문제와 금기를 연관시킨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최상진 외 3인(2002)의 『여성관련 금기어의 타당성 및 수용성 지각』이라는 논문도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특히 심리학적 관점과 결부되어 있어 흥미를 끈다. 물론 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다.

박정렬·최상진(2003)은 「금기어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심층심리 탐색」이라는 성과를 내놓은 바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금기어’보다는 ‘금기 행위’에 대상을 두고 있어, 언어적 환경과 관련한 연구 성과라고 보기에는 일정한 무리가 뒤따른다고 판단된다.

문학 분야에서의 논의는 대부분 설화와 관련한 경우가 많다. 이상백(1981)이 「한국 금기설화의 연구」를 필두로 시작된 이 분야에서의 연구는 주로 구비문학, 특히 설화와 관련지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장장식(1984, 1985)은 「금기 설화 연구」와 「금기의 갈등구조」라는 연구를 통해 설화를 대상으로 그 주인공들의 양분적 가치체계에 의해 갈등이 발생하며 이 갈등을 제어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 금기의 주요 기능이라고 말한다. 같은 시기 류순애(1984)는 국문학 및 민속학에 보이는 한국고대 금기설화의 양상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 최재선(1987)은 구비설화의 금기모티브에 나타난 민중의식을 통찰하였으며, 공명철(1989)은 「입사 및 금기 모티프의 설화적 수용 양상 연구」를 통해 입사 및 금기 모티프가 어떤 양상으로 설화에 수용되는지에 대하여 고찰한 바도 있다.

이런 부류의 연구들은 또 현대에 들어와 최강민(2002)이 신경숙의 소설을 대상으로 「억압된 금기적 욕망과 쌍생아적 상상력, 신경숙론」이라는 연구를 통해 연구의 대상을 현대의 소설로 확장하는 성과를 낳기도 하였다. 박연호(2006) 또한 「놀이공간에서의 문학적 금기위반과 그 의미」를 통해 문학이 아닌 놀이공간이라는 새로운 대상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여성과 결부하여 논의한 결과도 있다. 백은주(2007)는 조선시대 후기 사설시조와 관련하여 1990년대 한국 여성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금기와 위반으로서의 성(性)을 다룬 적이 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설화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그치지 않는다. 신동훈(2007)은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인식의 층위」라는 연구 성과를 남겼으며, 김용덕(2008) 또한 「금기설화의 구조와 상징적 의미 연구」를 통해 설화와 금기와의 상관성에 대해 천착한 바 있다.

금기에 대하여 언어의 의미적·구조적 현상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도

있다. 금기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 현상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재기(1970)의 『금기 및 금기담의 의미론적 고찰』을 필두로 남기심(1982)의 『금기어와 언어의 변화』, 김선풍(1994)의 『한국인의 금기어와 금기담』, 김종수(2000)의 『금기와 사전에 나타난 금기어』, 하재영(2001)의 『금기어의 구조 및 발생요인』, 그리고 박영준(2004)의 『한국어 금기어 연구-유형과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금기어는 우리 삶에 관여하는 거의 분야에서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기 자체가 생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먹는 것에 대한 금기는 절대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 성과들에도 잘 반영되는 편이다. 김춘연(1981)의 『식품금기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필두로, 박영선(1994, 1999)이 진행한 『울릉도 지역 주부들의 전통음식과 금기식품에 대한 인식』, 『한산도 지역의 향토음식과 금기식품에 대한 인식』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최현섭(1998)은 『대청도 대연평도의 금기언과 그 교육적 활용』이라는 연구를 통해 금기어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남민예, 한명숙(1999)은 『수의의 금기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복식문화와 금기에 대한 상관성을 고찰한 바도 있으며, 엄옥자, 민성희(2002)은 『춤에서의 금기 기호학적 접근 - 송범의 무용극 <그 하늘 그 북소리>를 중심으로』를 통해 무용과의 상관성에 대해 고찰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기선(2006)은 『한국과 몽골의 금기 비교 연구』를 성과를 내놓으면서, 금기에 대한 세계적인 비교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분석해 보면, 언어학 분야에서의 금기에 대한 연구는 다소 빈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금기가 언어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고 볼 때, 금기어에 대한 연구가 빈약한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한 점이 없잖아 있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금기어에 대한 당대 문화와의 상관성 혹은 당대인들의 심리적 상황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던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기어 자체만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까닭에 금기어가 통용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배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특정 발화 상황에서의 금기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발화 상황에서의 대화자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 상태의 전반적 지속이 당대인들의 정서를 구축한다는 사실 또한 짐작할 수 있기에 우리는 당대인들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매개를 확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및 해결점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의 연구가 비록 적은 성과를 도출한 것은 아니나 특정의 현상에 치우친 경향이 없잖아 있어 보인다. 연구 대상이 언어 그 자체인 까닭에 금기어가 갖는 의미적·구조적 현상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룰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런 경향이 미흡했던 점을 보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필자는 그런 언어적 현상들 가운데 내포된 언어발화자들의 정서적 배경<sup>1)</sup>을 탐색해야 한다는 일종의 당위를 설파하고자 한다. 이러한 당위는 본고에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인 고유의 정서를 말해오는 과정에서 그 근거의 제시는 매우 미약한 편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미약한 지점을 포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개로 ‘금기어’를 설정하고자 한다. 특정 상황에서의 금기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인 고유의 정서를 파악하려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 과정이라고 하겠다.

더불어 한국인 고유의 정서 및 이의 변화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 ‘배경’에 대한 연구는 빠트릴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적 상황의 대부분은 배경과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올바른 상황 분석을 내놓을 수 없다. 언어 발화자들의 내적 상황이 투영될 수 있는 여지 또한 배경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화되는 정서 구축 양상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 또한 본 연구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은 의사소통능력의 제고 및 사회적 삶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

1) 여기에서 말하는 정서적 배경이란 금기를 강요당했을 상황에서 발화자가 받아들이는 감정적 양상을 말하며, 이러한 양상은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밝힌다.

활용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sup>2)</sup> 금기어의 사용이나 완곡어법의 사용이 개인의 심리 상태와 직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심리 상태는 정서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역으로 보자면, 이런 역할의 분석이 곧 사회적 삶을 위한 긍정적 교육의 한 일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의사소통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연구 성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기 혹은 금기어와 연관되어 성찰한 경우는 최현섭<sup>3)</sup>의 경우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금기어가 우리 고유의 정서들, 그리고 삶의 태도 등과도 맥이 닿아 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방식의 의사소통방식 또한 충분히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4)</sup>

## II. 금기어와 완곡어법의 상관관계

금기어란 경계와 주의를 주고 금지와 기의를 일으켜 어떠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말이라거나 글자 그대로 금하고 꺼리는 말, ‘꺼리고 싫어하는 대상, 또는 행위’를 표현한 말 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바는 ‘어떠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말’<sup>5)</sup>에 있다. 일반적으로 행동의 기반에는 사고(思考)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그보다 더 기반이 되는 것은 사고의 기반이 되는 경험에

2) 물론 이 글이 금기어를 통한 ‘한국인의 감성’을 재구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교육적 효과 또한 간과할 수 없기에 따로 장을 설정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최현섭, 「대청도 대연평도의 금기언과 그 교육적 활용」, 『기전문화연구』 (1998), 25-26쪽.

4) 본고에서 사용하는 ‘감정’, ‘정서’, ‘감성’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는 조태성(2010)의 「시조의 감성구조」(『시조학논총』 32집)를 참조할 것.

5) 박영준, 「한국어 금기어 연구-유형과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15(2004), 81쪽.



있다고 보는 견해<sup>6)</sup>에 필자 역시 대체로 동의한다.

경험은 대체로 어떤 이가 부딪치게 되는 환경에 대한 감정적 인식과 그로부터 비롯하는 감정적 경험, 그리고 그런 경험으로 축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 ‘축적’이라는 의미는 ‘학습’의 의미와도 상통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은 ‘사고’의 고유 영역이라고 알려져 온 것도 사실이다. ‘꺼리고 싫어하는’ 같은 단어의 의미는 다분히 감정적이며 그에 기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어떠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말’의 기저에는 감정적 경험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적 경험은 다분히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그 경험의 대상이 공적 영역에서 벌어지거나, 대중적으로 벌어지는 경험이라면 그것은 대중적 감정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한 민족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은 민족적 감정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감정이 지속되어 고착화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일러 정서라고도 표현한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하는 말’, ‘꺼리고 싫어하는 말’의 경험적 공간을 찾아냄으로써 우리는 한국인 고유의 정서를 말할 수 있게 된다. 경험적 공간이란 본질적으로 ‘과거의 공간’을 전제한다. 발화 상황에서의 부정적 공간을 거치면서 축적된(혹은 경험된) 공간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거기에 내재된 감정의 배제나 습합, 즉 정서의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한국인 고유의 정서에 대한 연구는 수없이 이루어져왔지만, ‘금기’ 혹은 ‘금기어’에 의해 분석된 정서의 경우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에서 밝혀내 고자 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서라고 말해지는 것들 중에 ‘금기어’를 통해 실현되는 것에 있다. ‘금기’나 ‘금기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그간 말하지 못해왔던 혹은 숨겨져 왔던 한국인의 정서적 측면들이 어떤 양상이든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한국인의 정서 중 어떤 특정한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닌

6)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조태성(2009), 「두려움으로부터의 소외, 감성-감정과 정서, 감성의 관계론적 고찰」(『현대문학이론연구』 제37집)을 참조할 것.

이러한 정서들이 반영되는 화용적 상황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완곡어법’ 같은 발화 상황이 그런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어법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없지는 않지만, 특정의 정서가 반영된 상황에서라면 이와 같은 어법을 달리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우리말의 대체어가 발달한 상황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말은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전에 없었던 말이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새롭게 탄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의미가 변화된 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금기어 또한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금기어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런 까닭에 금기어가 적용되는 언어적 환경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박영준<sup>7)</sup>에 의하면 금기어의 유형은 사용 환경에 따라 일반 금기어와 상황 금기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 일반 금기어란 모든 상황에서 금기어로 되는 경우를 말하며, 상황 금기어란 특정 상황에서 일반어가 금기어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위에서 말한 언어적 환경의 변화는 바로 이 상황 금기어와 관련을 맺는다. 예를 들어 현재에는 ‘밤에 올면 호랑이가 물어간다’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밤에 물어갈 정도로 ‘호랑이’가 존재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금기어의 실현 환경 혹은 양상과도 연관을 갖는다. 금기어는 해당 언어 공동체에서 기피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화 상황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금기어가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금기어가 원 형태로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는 언중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성적 표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금기어의 실현 양상은 해당 금기어를 금기함에도 불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의 발로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금기 영역인 성적 표현에 관한 어휘들이 다양한 유형의 실현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금기 정도가 낮은

---

7) 박영준, 같은 논문, 84쪽.

어휘군들은 그만큼 다양한 실현 양상을 보일 필요를 언중이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한국적 감성의 발현이 그만큼 자유로워진 환경에서라면 이러한 금기어의 사용 역시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호간의 변화 환경을 고찰함으로써 언어와 감성의 변화 사이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완곡어법이란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쓰는 표현법을 말한다. 그리스어인 ‘유피미아’에서 나온 말인데, 유피미즘(euphemism)이라고도 한다. 특정 발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가 당면한 곤란함을 덜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실제보다 더 좋게 말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화자가 겪는 발화 상황에서의 곤란함이란 대개 금기어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금기 대상을 완곡어로 부르게 되는 것이다. 완곡어가 일단 정착하면 새로운 완곡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가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금기 대상은 은유적인 표현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다음 경우를 보자.

ㄱ. 죽다

ㄴ. 변소

ㄱ)의 경우는 주로 ‘돌아가다’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죽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입에 올리기 꺼려했던 단어이자 관념이기도 하다. ‘돌아가다’는 그래서 죽음으로서의 완전한 이별이 아닌 원래 있던 곳으로의 되돌아감을 은유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재회의 여지를 남겨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완곡 표현이 사용되는 범주에 대해 “고래로 사람들이 언어에 의해 정신이 움직인다는 신앙적인 언어관에서 비롯되었던 금기어를 대신하는 완곡어의 역사를 가지며, 이로부터 비롯하여 사람들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표현을 마련하여 사용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문장 표현에서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언어를 쓴다는 것이 사람들의 사고의 역사와 현재의 인성을 반영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는 점을 잘 드러내 주는 언어 범주”<sup>8)</sup>라는

언급에 동의한다. 그래서 ㄴ)의 경우처럼 금기어에 가까운 단어도 완곡 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ㄷ. 가친

ㄹ. 줄고

ㅁ. 다문화가정

ㄷ)처럼 화자와 관련된 사람을 가리키는 국어의 표현 또한 완곡 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겸손, 공손, 또는 정중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자어로 바꾸어 쓰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화자와 관련된 사물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ㄹ)처럼 자기가 쓴 원고를 표현하는 방식 등이다. ㅁ)은 집단을 가리키는 차별적 단어에도 완곡 표현이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에서 차별 받는 소수민족, 사회적 약자에게 쓰던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를 새 단어로 바꾸어 쓰려는 것이다.

김광해는 “주로 기본이 되는 어휘들이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연상을 동반하는 경우에 그 같은 연상을 삭감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일군의 어휘소들을 완곡어라고 한다. 완곡어는 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내어 말하기 어려운 신체의 명칭, 성행위, 배설 행위 등을 표현하는 어휘소들에 대응하여 널리 분포하며, 나아가서는 죽음, 질병, 형벌 등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행한 상황들과 관련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심리적 경외감에서 비롯하는 완곡한 표현의 필요를 위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완곡어에 대응하는 기본이 되는 어휘소들은 다분히 금기어(禁忌語)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된다.”<sup>8)</sup>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완곡어의 사용이 이와 같은 터부(Taboo)라고 하는 사회, 문화적인 관습 등에 의해서 피해지는 말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을

8) 김미형, 「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과 언어 심리 연구」, 『한말연구』 7(2000) 60쪽.

9) 김광해, 『국어어휘론개설』(집문당, 1993).

존중하는 즉, 청자의 입장에서의 내용 구성을 위한 형식 선택으로 완곡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어의 특성인 높임법의 사용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완곡어는 금기어를 대체하기 위한 경우와 더 나아가 ‘배려’를 위한 경우의 쓰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역으로 보자면 금기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완곡어 또는 완곡 표현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금기어나 완곡어 모두 발화 상황에서의 ‘말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차이가 있다면 금기어는 그 행위가 부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완곡어는 긍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언중이 그 자신의 발화 행위에 대해 언제나 긍정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곡어의 생성이 사회적 감성과도 연관이 있으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음 경우를 보자.

## 비. 병신

비)의 경우는 대표적인 사회적 금기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 대신 ‘장애인’이라는 완곡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단어조차 차별을 상징하는 용어로 치부된다. 그래서 ‘장애우’ 같은 말들을 만들어 사용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바로 언어 행위의 긍정성 지향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완곡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심상이 크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시어 자체의 본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어떤 완곡어가 특정 발화 상황에서 잘못된 인식으로 발화되었을 경우의 위험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으로 인해 언제나 얼굴이 빨간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자 삶의 콤플렉스였다. 그런 그에게 “혈색이 참 좋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 언술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더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완곡어법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발화 상황에서의 상호 배려심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감성적 인자들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에 제시한 심재기의 진술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금기가 발생하는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첫째로 인간의 심성은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반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지속적인 본성 가운데는 불가지·불기해한 힘, 곧 마술·마력에 대한 공포라고 할 수 있다. 금기와 언어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문화수준이 낮은 사회에서 금기 본래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는 공포적 대상에 대한 호칭금기이고, 또 한 가지는 완곡어법에 일괄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전이한 표현, 예의 바른 표현을 위하여 사용하는 금기이다.<sup>10)</sup>

### Ⅲ. 금기어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정서 구축 양상과 그 교육적 효과

#### 1. 정서 구축 양상과 심리 현상

앞선 논의들을 토대로 보자면 금기어를 정의하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금지하거나 기휘(忌諱)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구전되어 온 것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구전’과 관련한 조건은 우리의 정서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구전과 정서는 모두 시간적 지속성, 적층성의 측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다음 경우를 보자.

10) 심재기, 「금기 및 금기담의 의미론적 고찰」, 『논문집』 2(1970), 2-3쪽.

- ㄱ. 모서리에 앉으면 복 나간다.  
 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복 나간다.

ㄱ)의 경우는 모가 난 부분을 싫어하는 우리 민족성과 연관되어 있는 진술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항상 원처럼 둥근 상태를 선호한 것은 아니다. 서열과 연륜이 중시되는 유교 사회에서 ‘상석’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모가 진 곳에서 모 부분에 앉는다는 것은 이러한 서열이나 연륜에서 배제된다는 의미와도 같게 된다. 그런 까닭에 이런 진술이 종종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ㄴ)의 경우는 전통사회에서의 남존여비 사상이 투영된 금기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의 금기어는 특히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서 규정된 미풍양속을 해치는 특정한 행위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응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포감을 조장함으로써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복 나간다.’는 결론이 직접적으로 특정 공포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책임은 부엌을 맡고 있는 여성에게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금기어는 그런 책임에 대한 공포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원래 금기어는 이처럼 부정적 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초자연적 힘에 의한 응징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한국인의 대표적인 정서 가운데 일부라고 일컬어지는 ‘한’이나 ‘인내’, ‘신명’ 등도 여기에서 기원할 수도 있다. “비록 금기가 줄어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기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금기와 관련된 신념, 금기와 관련된 정서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그러한 신념과 정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금기와 관련된 신념의 한 가지 변형된 형태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인의 심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고(忍苦)와 근신(勤慎)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sup>11)</sup>는 진술도 이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11) 박정열·최상진, 「금기어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심층심리 탐색」, 『한국심리학회』 22(2003), 58쪽.

주류 문화와 가치가 모두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외중에 생성된 민중들의 욕망과 생활이 모두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런 대립의 상황에서 강제된 어떤 행위나 심리는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안으로 침잠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을 매개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금기어였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의 금기어를 고찰해봄으로써 우리 고유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현대적, 그리고 긍정적 계승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민중들의 정서와 유리된 상황에서 발생한 금기어를 추적해 볼 수도 있다. 우리 민중들이 갖고 있는 금기의 이유를 탐구하다 보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지닌 정신세계의 특성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신세계의 특성을 본고에서는 감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금기어는 언어학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현상에서도 비롯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금기라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기어를 살펴보는 것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짚어 볼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폈던 최상진 등의 연구는 한국인 심리학 연구의 좋은 자료로 가치가 높다. 특히 전통적인 한국인 심리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 당시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학적 문헌이나 통계치가 있을 리가 만무한 시대였다. 결국 우리는 과거 사람들의 사상, 속담 같은 일상생활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 속에서 문화적, 사회적 공통점과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언어 분석적 접근법’이라고 부른다. 위 연구는 이러한 ‘언어 분석적 접근법’을 사용한 대표적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언급된 빈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중요성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말이 많다는 것은 현상의 중요성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연구의 중요성을 관찰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금기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그것의 사실 여부, 합리성 여부를 떠나 그것이 실제 사람들의 행동과 인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금기는 단순히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는 일상적 사고 판단과는 다른 차원의 신념 체계이며 판단 차원”이며, “금기는 그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것에 따른다는 성격이 강하다.”<sup>12)</sup> 따라서 금기어 분석, 특히 발화 상황에서의 금기어 분석은 단순히 언어의 분석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게 된다. 그것은 곧 언어 사용자들의 심리 분석이 될 수 있으며,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정서를 파악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 2. 감성언어를 통한 금기어의 교육적 효과

언어 환경적 측면에서 한국인들은 보통 타인에게 폐를 끼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즉 들으면 기분 나빠질 소리라든가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인의 언어적 습성이라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한국인은 수많은 대체어를 생산했다고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소식’이라는 단어에는 ‘새로움’이라는 자질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자질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종 ‘희소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비소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 것과는 분명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직 기쁜 것만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싫은 것, 들어서 기분 나쁜 것 등은 될 수 있으면 언급하지 않으려는 한국인들의 언어적 습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죽음’과 관련된 단어들은 또 어떤가. 슬픈 일, 안 좋은 일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는 수많은 대체어를 생산해 왔다. 선종, 붕어, 돌아가심, 귀천 등등의 단어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체어들은 주로 승화적인 측면이 강하다. 안 좋은 것조차도 좋게 인식하여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언어적 감성의 발현을 반영한 까닭이라고 할 수 있겠다.

---

12) 박정열·최상진, 앞의 논문, 46쪽.

한국인의 이러한 언어 사용의 감성적 습성과 그것이 주는 긍정적 의미에 주목한다면 필자는 이러한 류의 연구를 통하여 의사소통능력 제고라는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청소년기 학습 과정에서 활용되는 각종 ‘이야기 거리들’, 특히 고전 작품들 속에서 금기의 맥락을 파악하고, 금기어가 주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그리고 그런 의미를 현실의 언어생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이러한 교육적 효과는 보다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교육의 현장에서 금기어를 드러냄으로써, 또한 교육의 교재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남을 배려하는 인성적 차원에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성은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금기어 교육을 통해 금기 상황을 인지하는 훈련은 곧 사회적 배려를 신장시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금기어 교육이 의사소통능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의 차원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앞서 말했지만 금기는 본디 외경과 혐오의 원천인 공포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는 개인적 경험을 초월하여 사회적 제약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한다. 우리 일상생활은 개개인의 자유의지에서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상당한 사회적 제약 속에서 영위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생활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개인을 둘러싼 사회, 제도, 풍습, 습관으로부터 개인의 생활의식, 또는 행위 더 나아가 생활관을 형성해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생활관이 인간의 원초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두려움, 공포 등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을 내포하는 금기 혹은 금기어를 찾아 그 원인 등을 분석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감정 조절 능력들이 생겨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개인 생활을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생활의 안정화가 사회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경우 쟁점 중심 교육에서라면 사람들이 다루기를 꺼려하는 사회적 쟁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금기 영역이다. 금기 영역들은 이성적 사고의 가치가 가장 적게 부여되며,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비이성적 혹은 편견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이다. 이러한 금기 영역에서 도출된 주제 또는 쟁점을 금기 주제 혹은 금기 쟁점이라고 부른다. 금기 영역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믿음과 가치를 이성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학습자들에게 자기 존중, 정체성, 아노미, 소외, 자기 행동화 등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sup>13)</sup>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완곡 표현의 교육과 관련하여 그 감성적 특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가 감성언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개 꾸며지거나 포장되는 경우가 많다. 타자들의 감수성을 자극하기 위한 언어를 선별 포장하여 감성이라는 이름을 덧씌우는, 그야말로 말로만 감성이라는 의미이다. 현란한 수사(修辭)의 반복을 일삼는 몇 개의 시들과 시어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독자 혹은 청자들에게 약간의 감동을 줄 수 있을망정, 그들의 마음까지 추동하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언어의 발화태(發話態)는 본질적으로 화자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심인 경우가 있고, 단순히 수사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감성언어라고 불려야 하는 것들은, 즉 언어의 감성적 발화는 진심을 담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기계적인 배려가 아닌 타자의 긍정적 행위를 염두에 둔 배려 상황의 발화이기 때문이다.

‘괜찮으시다면~’, ‘바쁘실텐데~’, ‘실례지만~’ 등등의 말은 모두 언어적 배려에 의해 이루어진 언어의 감성적 발화태이자 완곡 표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다. 감성언어의 효과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속담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감성언어는 상대방부터 자신이 배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진심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감성언어는 그 발화적 특성상 발화태의 첫머리와 끝머리에 나타나는 경우가

13) 임경수, 「금기 주제를 통한 사회과 쟁점 수업에 대한 고찰」, 『사회과교육』 45(2006), 164쪽.

많다. 물론 끝머리에는 보통 감사의 인사말이 대부분이다. 반면 그것이 첫머리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양태를 보인다. 발화의 상황과 맥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발화의 주체는 언제나 주변에 대한 관심을 열어두어야 한다. 타자에 대한 관심은 타자를 위한 자신의 진심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어야하기 때문이다.

감성언어는 그 자체로 화자와 청자의 ‘사이’에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담당한다. 감성적인 것들의 공유를 위한 ‘사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역할이 긍정적인 것이냐 부정적인 것이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화자에게 달려 있다. 결국 감성언어의 효과적 사용은 화자의 감성적 기제들이 가지고 있는 질과 그 학습의 양에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IV. 나오며

본고에서는 우선 한국인의 정서를 논하는데 있어 그 근거의 제시가 대체로 미약하다는 측면을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로 ‘금기어’를 들었다. 금기어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모두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특정 상황, 특히 부정적 상황에서의 정서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 서였다. 이런 과정에서 완곡어법 또한 한국인의 정서를 포착하는데 매우 중요한 표현법 중에 하나임에도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금기어와 완곡어법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인의 정서 구축 양상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양상이 개인의 심리 현상과도 직결되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런 심리 현상이 개인의 사회적 삶에도 관여할 수밖에 없음을 몇 가지 언어 사용례를 통해 밝힐 수 있었다. 더불어 본고의 연구과정 자체가 의사소통능력의 제고 및 사회적 삶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 또한 설명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몇 가지 주요한 문제가 노출되었고 그것의

해결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감성의 문제를 언어학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던 본고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에서 보다 면밀하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광해(1993), 『국어어휘론개설』, 집문당.
- 공명철(1989), 「입사 및 금기 모티프의 설화적 수용 양상 연구」, 『청람어문교육』 2.
- 김기선(2006), 「한국과 몽골의 금기 비교 연구」, 『몽골학』 21.
- 김기철(1977), 「영동지방의 금기어연구」, 『관동어문학』 1.
- \_\_\_\_\_ (1985), 「영동지방의 생업과 관련된 금기어 연구」, 『한국민속학』 18.
- 김미형(2000), 「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과 언어 심리 연구」, 『한말연구』 7. 27-63.
- 김선풍(1994), 「한국인의 금기어와 금기담」, 『어문론집』 23.
- 김성배(1962), 「한국 금기어고」, 『국어국문학』 25.
- 김승찬(1996), 「기장지방의 금기 속신」, 『한국민족문화』 8.
- 김열규(1978), 「금기의 사상 : 부정의 금기를 중심으로」, 『북악』 29.
- 김용덕(2008), 「금기설화의 구조와 상징적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화』 36.
- 김종수(2000), 「금기와 사전에 나타난 금기어」, 『독어교육』 20.
- 김춘연(1981), 「식품금기에 대한 조사 연구」, 『관대논문집』 9.
- 남기심(1982), 「금기어와 언어의 변화」, 『언어와 언어학』 8.
- 남민예·한명숙(1999), 「수의의 금기에 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7.
- 노지은(1995), 「월경경험과 문화적 금기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12.
- 류순애(1984), 「국문학 및 민속학 - 한국고대 금기설화의 양상」, 『국어국문학지』 22.
- 문효근(1962), 「한국의 금기어」, 『인문과학』 8.
- 박연호(2006), 「놀이공간에서의 문학적 금기위반과 그 의미」, 『어문연구』 50.
- 박영선(1994), 「울릉도 지역 주부들의 전통음식과 금기 식품에 대한 인식」,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10.
- \_\_\_\_\_ (1999), 「한산도 지역의 향토음식과 금기 식품에 대한 인식」,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15.
- 박영준(2004), 「한국어 금기어 연구-유형과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15. 79-105.
- 박정열·최상진(2003), 「금기어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심층심리 탐색」, 『한국심리학회』 22. 45-61.
- 백은주(2007), 「1990년대 한국 여성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금기와 위반으로서의 성(性)

- 조선시대 후기 사설시조와 관련하여, 『여성문학연구』 18.
- 신동훈(2007),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인식의 층위」, 『비교민속학』 33.
- 심재기(1970), 「금기 및 금기담의 의미론적 고찰」, 『논문집』 2. 1-30.
- 엄옥자·민성희(2002), 「춤에서의 금기 기호학적 접근-송범의 무용극 <그 하늘 그 북소리>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10.
- 오새내(2002), 「한국어 여성비속어의 분류와 특성」, 『한국어의미학』 11.
- 윤여송(1994), 「産俗 금기의 의미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
- 이상백(1981), 「한국 금기설화의 연구」, 『어문학교육』 4.
- 임경수(2006), 「금기 주제를 통한 사회과 쟁점 수업에 대한 고찰」, 『사회과교육』 45. 161-191.
- \_\_\_\_\_ (2007), 「교육주체자들의 금기주제 토론수업 수용성 비교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14권 2호.
- 장장식(1984), 「금기 설화 연구」, 『한국민속학』 17.
- \_\_\_\_\_ (1985), 「금기의 갈등구조」, 『한국민속학』 18.
- 조태성(2009), 「두려움으로부터의 소외, 감성」, 『현대문학이론연구』 37.
- \_\_\_\_\_ (2010), 「시조의 감성 구조」, 『시조학논총』 32.
- 진성기(1973), 「제주도 금기어 연구」, 『한국민속학』 6.
- 최강민(2002), 「억압된 금기적 욕망과 쌍생아적 상상력. 신경숙론」, 『인문학연구』 34.
- 최상진·정태연(2001), 「인고(忍苦)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 긍정적 보상기대와 부정적 과실상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7.
- 최상진 외 3인(2002), 「여성관련 금기어의 타당성 및 수용성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
- 최재선(1987), 「구비설화의 금기모티브에 나타난 민중의식」, 『모악어문학』 2.
- 최현섭(1998), 「대청도 대연평도의 금기언과 그 교육적 활용」, 『기전문화연구』 25-26.
- 허재영(2001), 「금기어의 구조 및 발생요인」, 『사회언어학』 9.

**【Abstract】**

This article first focuses on the point that in narrating and depicting Korean's unique emotions, the supporting bases are usually very weak. Hence, the topic of Korean 'tabooed words' is addressed he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bases. The analysis on tabooed words is intended to understand Koreans' unique emotion in specific situations. The notion of 'euphemism' is also incorporated here as one of essential expressional methods of Koreans' unique emotions. B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tabooed words and euphemism can one examine methodically the constructional aspect of Korean emotions. Furthermore, it is shown in this analyzing process that the words are intimately related with personal psychology, which is in turn, linked inseparably to social life. The so-called 'emotional words' are the representative examples.

Considering the nature of this study, the analysis can be used also in education for improving one's social skills based on communication, since using tabooed words and euphemism is closely associated with one's mental state. The mental state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structing emotions, and studying such a role may bring a positive educational aspect of one's social life. That is, if we were to take into account that tabooed words and euphemism are related to our unique emotions and social lives, it would not be difficult to find a suitable communicational method in our social lives.

**【Keywords】** Gamsung, Tabooed words, Euphemism, educational effect,  
Korean emotion

논문 투고일: 2013. 03. 11

심사 완료일: 2013. 04. 03

게재 확정일: 2013. 04. 03